

서울시 THE DAILY NEWS REVIEW - 20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코로나19 대응 주요 소식

발행일 2020.3.19.

발행처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발행인 최재필 · 김창보

홈페이지 www.scdc.or.kr · www.seoulhealth.kr

- 국내 '코로나19' 93명 추가 확진으로 총 8,413명, 서울시 어제 11명 추가 확진, 총 281명
- 이탈리아, 코로나19 첫 지역 감염사례 확인 이후 25일만에 누적 확진자 3만명 넘어... 2,503명 사망
- 국내 전파양상 변화, 대구·경북에서 수도권으로, 중국 유입에서 유럽발 입국자 확진 사례 잇따라
- 초고속 처리된 '코로나19 추경' 대구·경북 지역 지원 1조394억 원, 감염병 대응 대폭 증액
- 보건복지부 추경 3조6675억 원 확정,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민생경제 지원 등에 투입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행, 117만여 가구에 30만~50만원 긴급지원...3천271억 원 투입
- 트럼프 정부 경기부양책 "1000달러씩 현금 지급", 日 전국민 현금지급 검토 등 국가별 지원 대책 마련
- 스페인 코로나 대책...민간병원 국유화, 영국 코로나 치료 민간 병상당 £300 NHS에 청구 유감 표명

1. 발생 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판

	확진환자 현황			검사 현황 ⁴⁾			자가격리자 현황		
	확진자	사망자	격리해제	검사건수	검사중	결과음성	계	감시중	감시해제
서울시 ¹⁾	281	0	58	52,259	4,415	47,844	7,219	2,919	4,295

전 국 ²⁾	8,413	84	1,540	287,234	16,346	270,888	-	-	-
전세계 ³⁾	198,110	7,951	-	-	-	-	-	-	-

1)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코로나19 발생동향' '20.03.19. 00시 기준

2) 전국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20.03.18. 00시 기준

3) 전 세계의 경우, '위키피디아' '20.03.18. 16시 기준

4)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 실시 현황

- 서울시 신규 확진환자 11명, 누적 확진환자는 총 281명
 - 입원(격리)환자 223명, 격리해제 58명 / 질병관리본부 공식발표 확진환자 수는 270명(미발표 11명)
 - 3월 18일 00시 기준, 우리나라 사망자는 총 84명으로 치명률은 1.00%이며, 서울시는 사망자 없음

- 서울시 신규 확진자 환자구성 (2020.3.19. 00시 기준) ※ 확진일자는 서울시 기준이며, 추후 조정될 수 있음

구분	계	해외 여행력 (외국인 포함)	구로구 A 콜센터 관련	동대문구 교회사 PC방 관련	관악구 회사 관련	금천구 E 회사 관련	경기성남 B 병원 관련	경기성남 O 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력	조사중
3.18(수)	11	5	3	1	-	-	-	-	1	1
3.17(화)	5	3	-	1	-	-	-	1	-	-
3.16(월)	11	-	3	2	2	-	-	2	2	-
3.15(일)	6	-	3	-	-	1	1	-	1	-

- 최근 확진자들 중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가 유럽인 경우가 많음(주로 유학생이 귀국)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여행국가명	오스트리아 모로코 프랑스	영국	미국 (필라델피아, 뉴욕)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체류기간	2/28~3/11	?~3/14	1/18~3/16	?~3/16	1/31~3/17	3/6~3/15	2/11~3/8	3/6~3/15
증상발현일	3/12	3/12	3/9	3/16	3/14	3/16	3/5	3/17

- 입국일 기준으로, 증상발현일이 입국 전/당일/다음날인 경우, 특히 주의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함

- 서울시 주요 발생 원인별 현황 (2020.3.19. 00시 기준) (단위: 명)

소계	구로구 콜센터 관련	동대문구 관련 (교회,PC방)	동대문구 관련 (요양보호사)	해외접촉 관련	은평성모 병원 관련	성동구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종로구 관련	대구 방문	인천지 관련	타 시·도 확진자 접촉자	기타
281	85	19	8	32	14	13	10	11	3	19	67

※ 역학조사서 기반 1차 분류된 것으로,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산발 사례 또는 조사 중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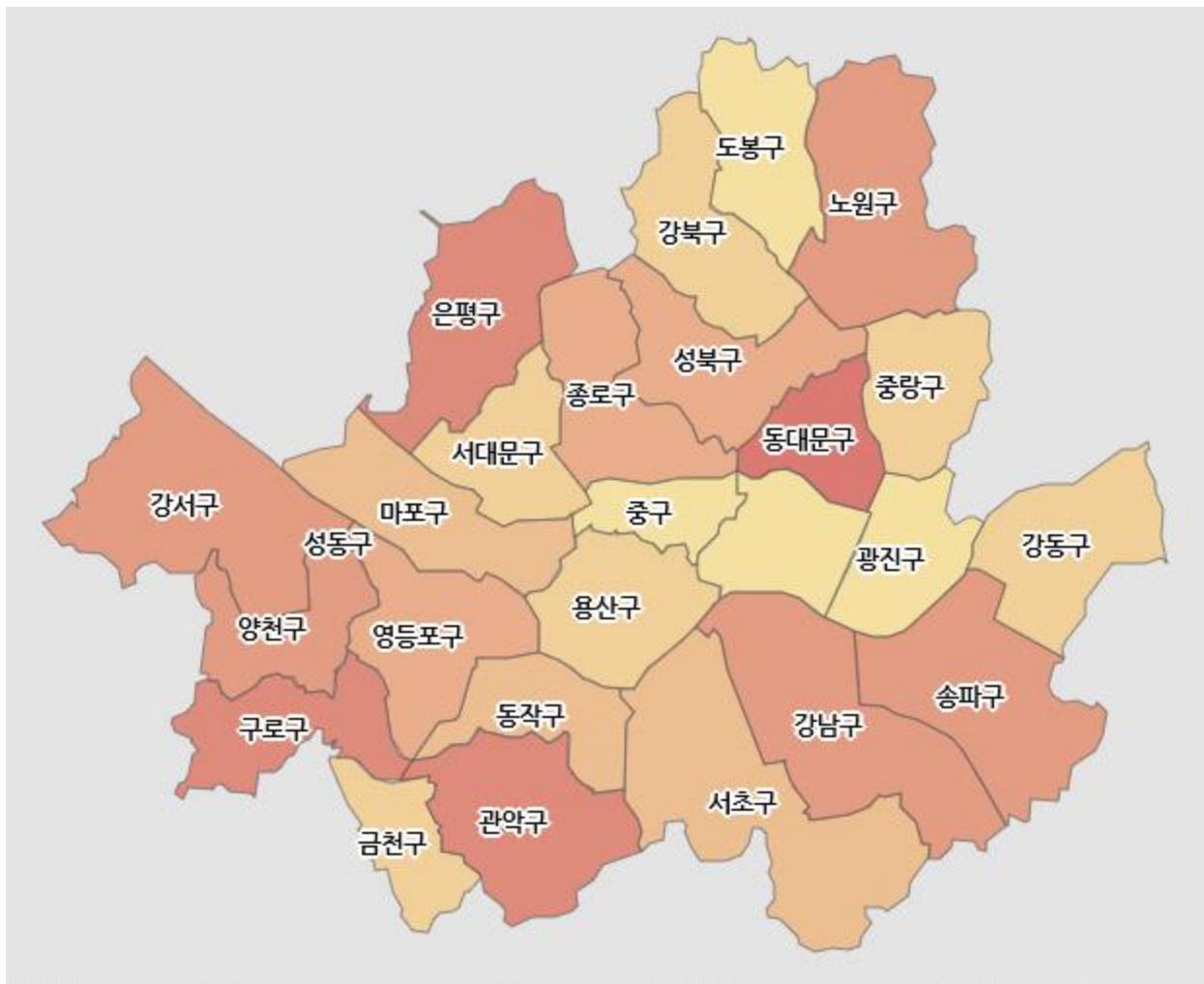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3월 19일 00시 기준,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총 281명임 (거주지 기준으로, 동대문25, 구로22, 은평18, 관악17, 노원16, 송파16, 양천15, 강서15, 강남15, 영등포14, 종로11, 성북11, 마포10, 동작9, 서초9, 서대문8, 중랑5, 강북5, 금천5, 강동5, 용산4, 성동3, 광진2, 도봉2, 중구1 순으로 발생. 기타18(타시도 이관))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기타	계
누계	11	1	4	3	2	25	5	11	5	2	16	18	8	10	15	15	22	5	14	9	17	9	15	16	5	18	281
3/18			1					2			1			2	1				1	2			1				11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서울시 병상 현황 (2020.3.18.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

구분	합계	국가지정 격리병원	지역 거점병원	시립병원	민간병원 (상급병원)	생활치료 센터(3.16~)	감염병관리기 관(3.23~)
병원수	25	4	6	4	10	1	-
병상	가용	909	49	13	667	80	100
	사용	247	30 (서울16+타14)	12 (서울7+타4)	194 (서울174+타20)	3 (서울3)	8 (서울8)
	잔여	662	18	1	473	77	92

- ※ 국가지정격리병원(49): 국립중앙의료원33, 서울대9, 중앙대4, 한일병원3
- ※ 지역거점병원(13): 강남성심2, 고대구로2, 상계백3, 서울백1, 순천향대2, 삼육서울3
- ※ 민간병원(80): 신촌세브란스3, 삼성서울17, 건국대3, 서울성모12, 강남세브란스1, 서울아산6, 강북삼성6, 한양대18, 경희대12, 고대 안암2
- ※ 생활치료센터(1): 태릉선수촌 내 올림픽의 집

● 서울시 전체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3.18.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합 계	자치구				의료기관				
	소계	보건소내	임시 선별진료소 및 상담소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소계	국가 지정	지역 거점	국공립 병원	민간 병원
93	51	39	8	4	42	5	6	7	24 ¹⁾

1) (1개소 추가) 청구성심병원

●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3.18.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현황		세부현황		
설치 (A+B+C)	검체채취 가능 (A+B)	보건소 내 (A)	보건소 외 (B)	상담소 (C)
47	42	39	3	5

- ※ (보건소 내 3개소 운영) 동작구 (1개구 총 3개소)
- (보건소 내 2개소 운영)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은평, 금천, 영등포, 서초, 강동구 (12개구 총 24개소)
- (보건소 내 1개소 운영) 광진, 도봉, 노원, 관악, 강남, 송파, 종로, 서대문, 양천, 강서, 마포, 구로구 (12개구 총 12개소)
- 보건소 외 선별진료소 운영: 홍대, 서강대,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앞
- 코로나19 상담소 운영: (2개소) 광진구, (1개소) 금천, 동작, 관악구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3.18.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진료		검체 검사		X-ray		비고
3.16(월)	누계	3.16(월)	누계	3.16(월)	누계	
1,654	50,094	1,017	30,134	8	1,071	

※ 전일 18시 보고 이후의 건수는 익일 누계에 바로 반영됨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3.17.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구분	진료		검체 검사		비고
	3.17(화)	누계	3.17(화)	누계	
계	2,209	49,169	1,524	25,621	
국가지정	346	9,083	181	4,318	
지역거점	525	8,248	433	5,481	
국공립병원	153	3,165	134	2,591	
민간병원	1,185	28,673	776	13,231	

※ 전일 18시 보고 이후의 건수는 익일 누계에 바로 반영됨

● 차량이동식(Drive-Thru)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3.17.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구분	3.17(화)			누계			비고
	진료인원	검사인원	양성건수	진료인원	검사인원	양성건수	
계	162	138	1	3,065	2,522	2	
은평병원	17	17	-	458	429	-	3.3.개소
舊소방학교	19	17	1	592	398	1	3.3.개소
잠실주경기장	69	47	-	1,269	954	-	3.3.개소
이대서울병원	57	57	-	746	741	1	3.5.개소

※ 전일 18시 보고 이후의 건수는 익일 누계에 바로 반영됨

- 양성건수: 검체 후 통보 되어온 양성반응자수로 검사일과 동일하지 않음

● 국내 확진환자 발생 현황

- 국내 확진자는 8,413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93명 추가)이며, 이 중 격리해제는 1,540명(전일 대비 139명 증가)으로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함.
- 사망자는 84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3명 추가)으로 치명률은 1.00%로 확인됨.
- 전국적으로 **약 80.2%는 집단발생(cluster)과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및 조사·분류 중인 사례는 약 19.8%임.
- * 전체 확진 사례 중 신천지 관련 집단발생은 5,016명(59.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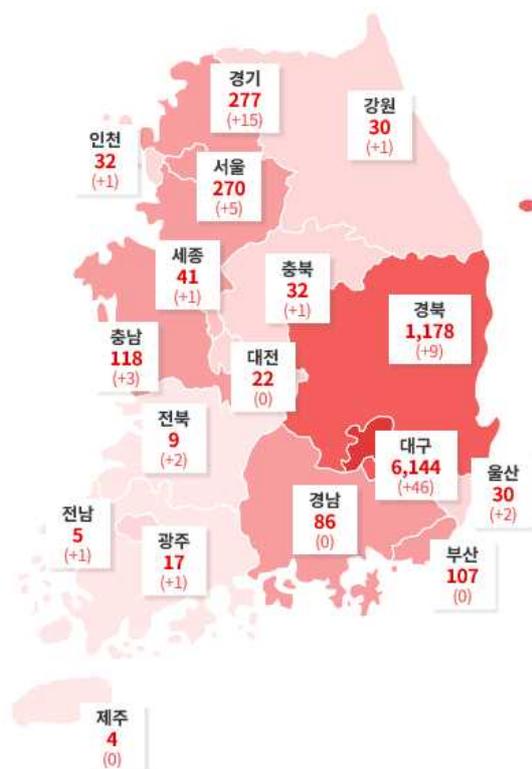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3.18.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3.17.(화) 0시 기준	286,716	8,320	1,401	6,838	81	278,396	17,291	261,105
3.18.(수) 0시 기준	295,647	8,413	1,540	6,789	84	278,396	16,346	270,888
증감	8,931 (3.1%)	93 (1.1%)	139 (9.9%)	Δ49 (Δ0.7%)	3 (3.7%)	8,838 (3.2%)	Δ945 (Δ5.5%)	9,783 (3.7%)

- 새롭게 확진된 환자 93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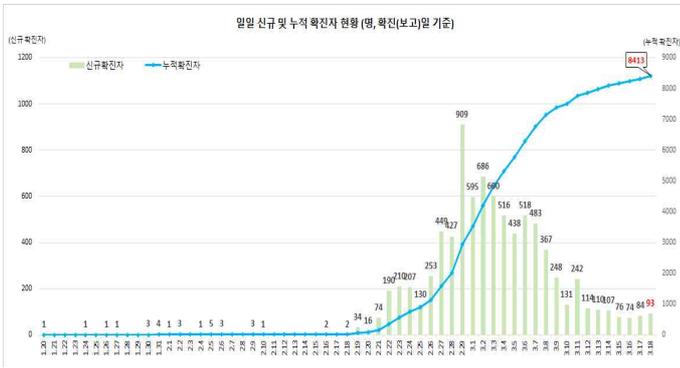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역
격리 중	6,789	215	48	5,038	27	11	18	21	41	215	21	27	102	4	3	922	63	2	11
격리 해제	1,540	55	58	1,048	5	6	4	9	-	59	8	5	16	5	2	235	23	2	-
사망	84	-	1	58	-	-	-	-	-	3	1	-	-	-	-	21	-	-	-
합계	8,413	270	107	6,144	32	17	22	30	41	277	30	32	118	9	5	1,178	86	4	11
증감	93	5	-	46	1	1	-	2	1	15	1	1	3	2	1	9	-	-	5

* 3월 17일 0시부터 3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국내 확진자 분포 현황 (*출처: 질병관리본부)

– 국내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2020.3.18. 00: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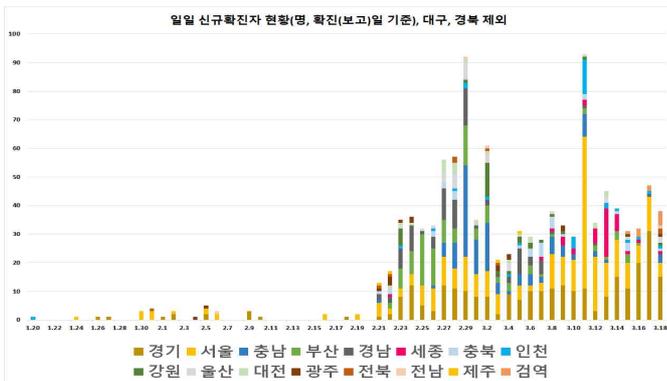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 추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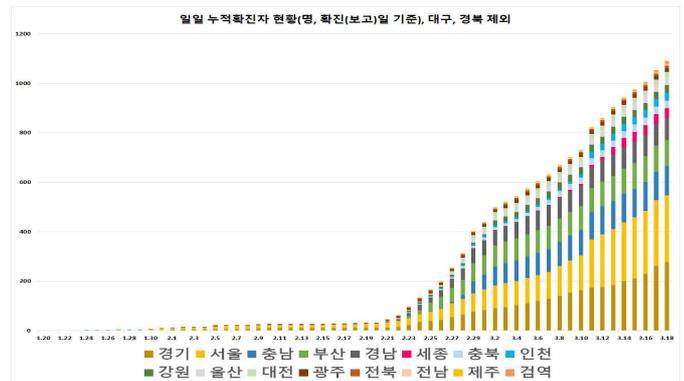
* 금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8,413명(전일 0시 기준 93명 추가)으로 보고되었으며, 최근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양상을 보임.

* 신규 확진자수는 3.15. 이후 금일까지 두자릿 수 증가에 머물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최근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인한 증가추세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임.
(3.16. 74명 → 3.17. 84명 → 3.18. 93명)

–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확진자 현황 (2020.3.18. 00:00 기준)



대구·경북지역 제외한 일일 신규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지역 제외한 일일 누적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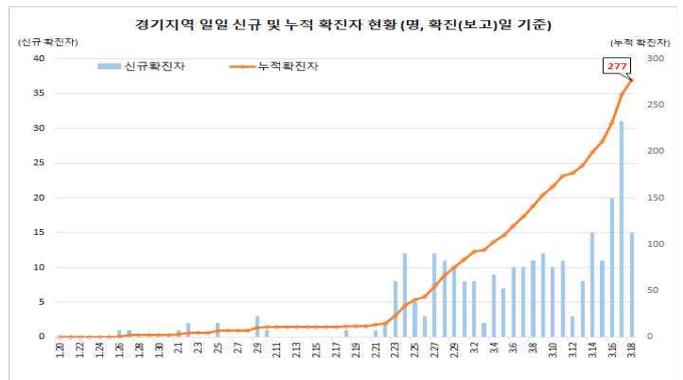
* 금일 신규 확진자 93명 중 대구·경북이 55명으로 전체의 약 60%이고, 경기 16%(15명), 서울 5%(5명)로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하면 수도권이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함.

*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의 특성은 수도권 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성남 은혜의 강 집단감염으로 경기지역의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구로콜센터 및 요양시설 등 2-3차 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양상을 보임.

– 서울/경기지역 일별 확진자 현황 (2020.3.18. 00:00 기준)



서울지역 일별 확진자 현황



경기지역 일별 확진자 현황

* 서울지역의 경우, 수도권 내 가장 큰 규모의 집단감염 사례로 구로구콜센터에서 확진자 135명으로 확인됨 (전일 대비 1명 추가 확진; 서울 82명, 경기 34명, 인천 19명).

- 콜센터 확진자에 의한 2-3차 감염(부천 생명수교회, 하나요양병원 등)의 우려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동대문구 동안교회, PC방 관련 19명 확진자 발생하였으며, 가족 간 집단감염 9건은 시간적 선후관계 고려하여 별도 사례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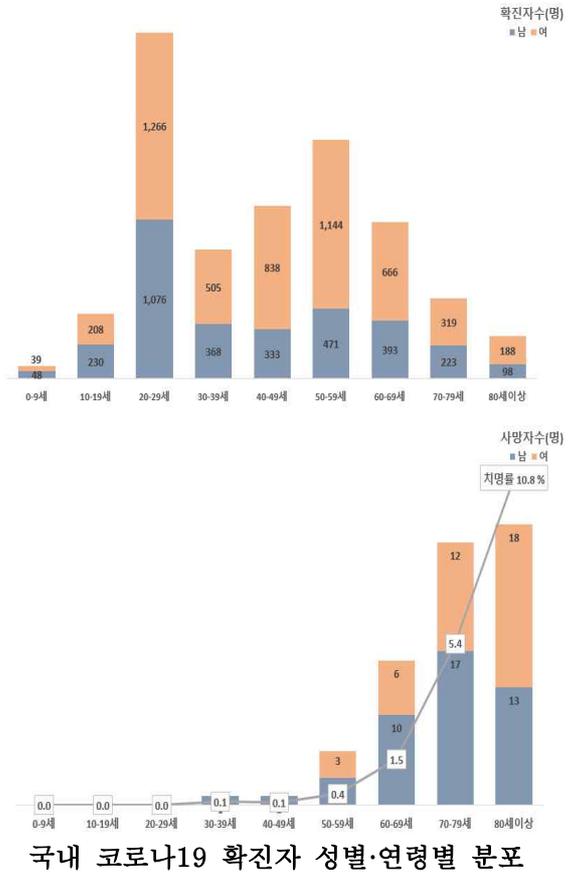
* 경기지역의 경우, 성남 은혜의 강 교회(수정구 양지동 소재) 관련 3월9일부터 현재까지 55명의 확진자가 확인, 접촉자에 대한 조사 진행 중임(확진환자 55명 중 경기 50명, 서울 4명, 충남 1명).

- 또한 성남시 분당제생병원 내 확진자 28명(3.18. 0시 기준)이 발생했고,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조사 중임.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2020.3.18. 0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현황

구분	확진자 (%)	사망 (%)	치명률%	
계	8,413 (100.0)	84 (100.0)	1.00	
성별	남성	3,240 (38.5)	45 (53.6)	1.39
	여성	5,173 (61.5)	39 (46.4)	0.75
연령	80세 이상	286 (3.4)	31 (36.9)	10.84
	70-79	542 (6.4)	29 (34.5)	5.35
	60-69	1,059 (12.6)	16 (19.1)	1.51
	50-59	1,615 (19.2)	6 (7.1)	0.37
	40-49	1,171 (13.9)	1 (1.2)	0.09
	30-39	873 (10.4)	1 (1.2)	0.11
	20-29	2,342 (27.8)	0 (0.0)	–
	10-19	438 (5.2)	0 (0.0)	–
	0-9	87 (1.0)	0 (0.0)	–



* 국내 확진자는 8,413명, 사망자는 84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치명률은 1.00%로 확인됨.

✓ 성별 분포 현황

- * 성별로는 확진자에서 여성이 5,173명(61.5%)으로 남성 3,240명(38.5%)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사망자의 경우에는 남성이 45명(53.6%)으로 여성 39명(46.4%)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성별에 따른 치명률은 3,240명의 확진자 중 45명이 숨진 남성에서 1.39%로 여성 0.75%보다 높은 치명률을 보임.

✓ 연령별 분포 현황

- * 확진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2,342명(27.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50대 1,615명(19.2%), 40대 1,171명(13.9%), 60대 1,059명(12.6%) 순으로 나타남.
- * 사망자의 경우 확진자의 연령대와는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76명(90.5%)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연령대별 치명률은 286명의 확진자 중 31명이 숨진 80세 이상이 10.84%, 70대가 5.35%로, 여전히 7080 고령층에서 높은 치명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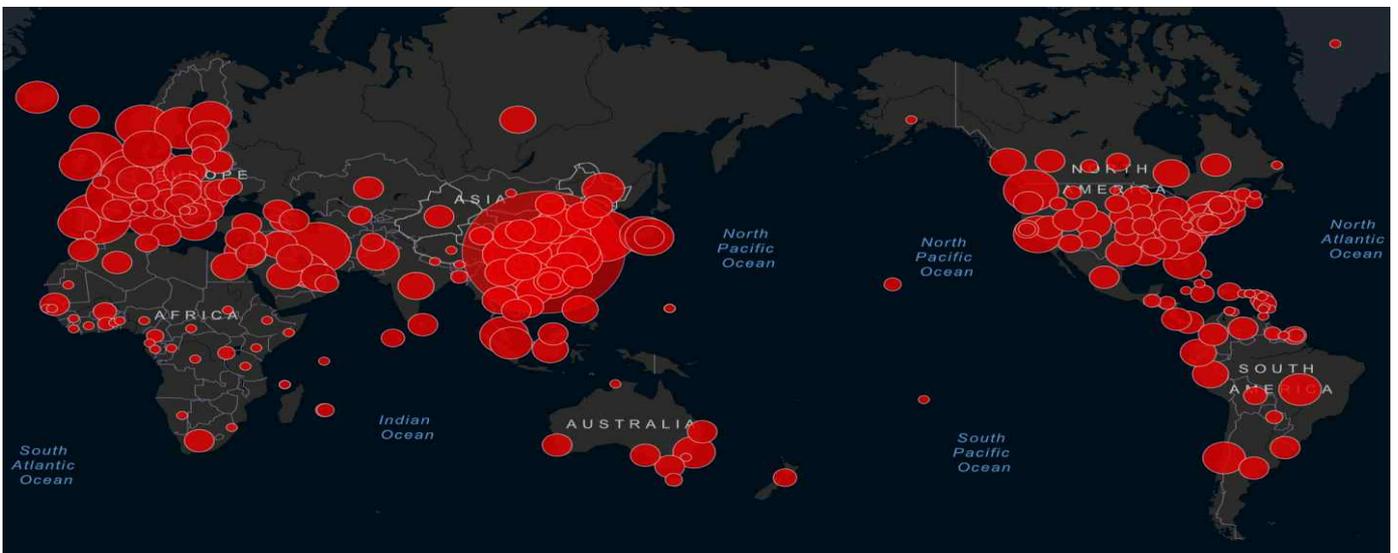
● 전 세계 발생 현황

- 11,526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179,112명으로 보고됨.
- 이 중 7,426명(475명 추가) 사망하여 치명률은 4.15%(전일 4.11%)로 확인됨. 치명률은 지속적 증가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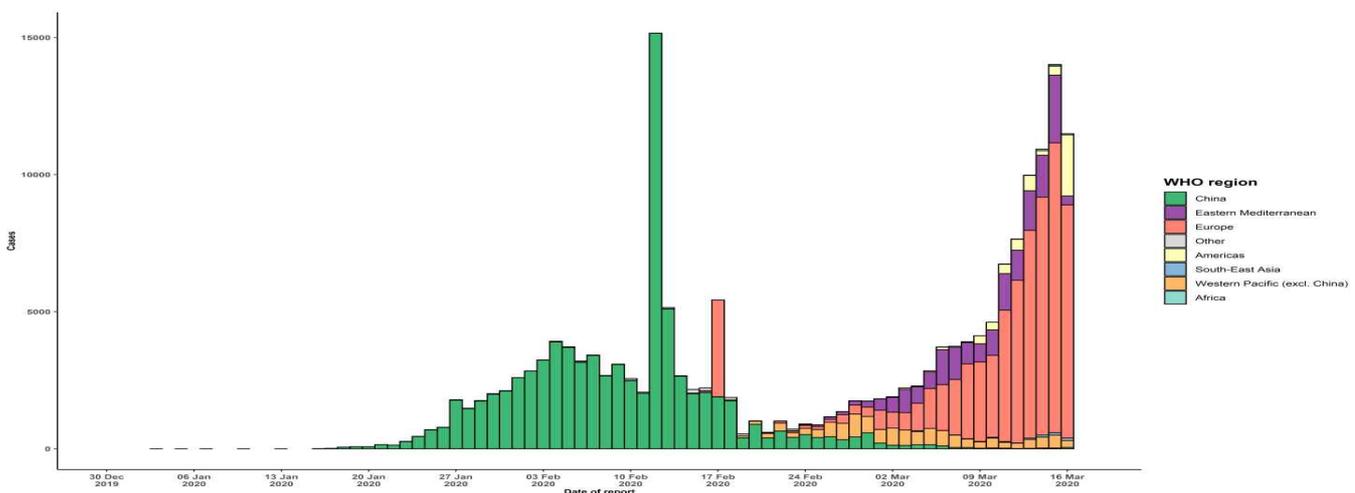
국가 및 지역	확진자수(명)	사망자 수(명)	치명률(%)	증가율(%)
전 세계	179,112	7,426	4.15%	6.9%
서태평양	91,779	3,357	3.66%	0.9%
유럽	64,189	3,108	<u>4.84%</u>	<u>42.4%</u>
동남아시아	508	9	1.77%	<u>56.3%</u>
중동	16,786	873	<u>5.20%</u>	20.0%
아메리카	4,910	68	1.38%	<u>105.2%</u>
아프리카	228	4	1.75%	<u>75.4%</u>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증가율=(당일확진자-전일확진자)/전일확인자*100

전 세계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3. 17.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코로나19 확산 현황 (2020. 3. 18. 기준) (출처) [2019-nCoV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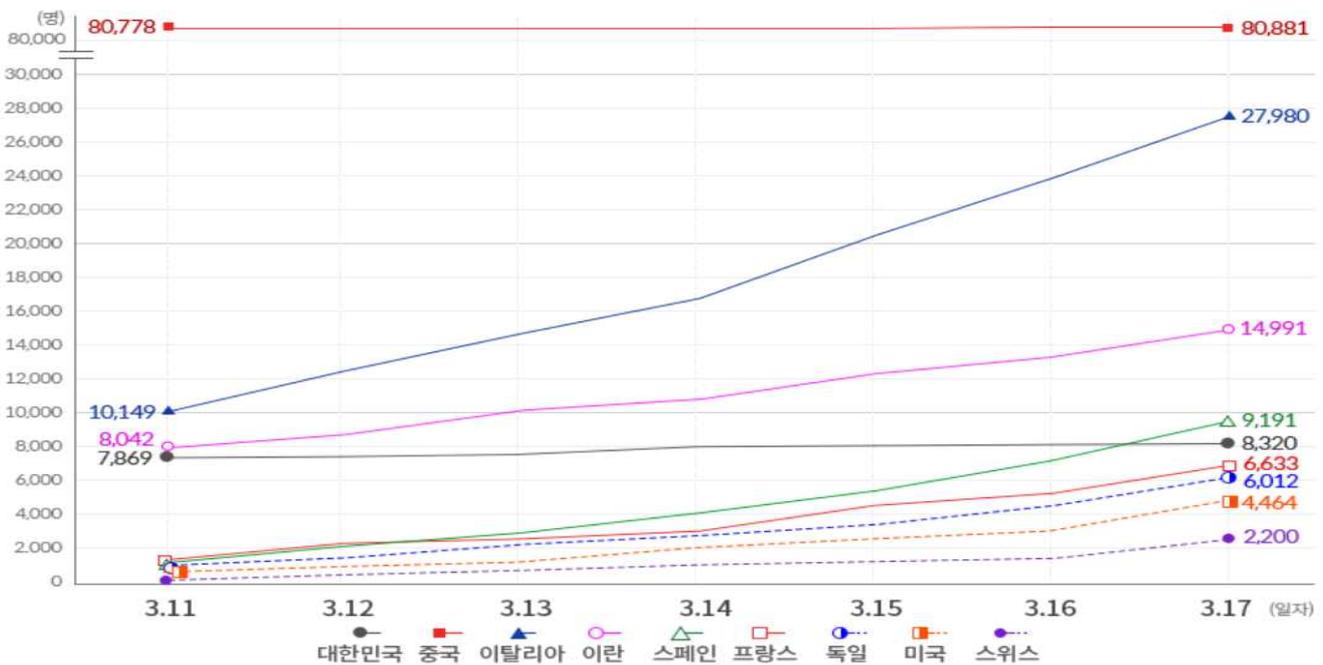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 3. 17.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주요 국가별 발생 현황** (2020. 3. 18.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 확진환자 185,976명(전일 대비 15,799명 추가, 9.3% 증가)으로 보고됨.
- 사망자 7,768명(전일 대비 778명 추가, 11.1% 증가, 치명률 4.17%)로 보고됨. 치명률은 이탈리아 7.84%, 이란 6.11%, 스페인 4.39%, 중국 4% 순으로 높았음. 치명률은 유병기간이 늘어나면서 더욱 증가할 전망

국가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	치명률
	3.12	3.13	3.14	3.15	3.16	3.17	3.18		
중국	80,793	80,801	80,824	80,844	80,860	80,881	80,894	3,237	<u>4.00%</u>
이탈리아	12,462	15,113	17,660	21,157	24,747	27,980	31,506	2,503	<u>7.94%</u>
이란	9,000	10,075	11,364	12,729	13,938	14,991	16,169	988	<u>6.11%</u>
스페인	2,140	2,965	4,231	5,753	7,753	9,191	11,178	491	<u>4.39%</u>
프랑스	2,281	2,876	3,661	4,499	5,423	6,633	7,730	175	2.26%
독일	1,567	2,369	3,062	3,795	4,838	6,012	9,257	24	0.26%
미국	1,220	1,663	2,034	2,726	3,244	4,464	6,233	106	1.70%
스위스	613	858	1,125	1,189	1,563	2,200	2,650	19	0.72%
총 국가수	107	110	114	123	130	137	141		
전세계 총환자수	116,3087	125,234	134,405	144,283	156,296	170,177	185,976		<u>4.17%</u>
전세계 총사망자수	4,548	4,884	5,316	5,665	6,388	6,990	7,768		



● **해외 감염자의 국내 유입 보고 관련** (3.18. 기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생한 신규 환자 중 5%가깝게 해외유입 환자라고 언급하였음
- 해당 국가는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 태국, 이집트, 미국 등으로 유입지역이 광범위 함
- 18일 0시 기준 현재까지 검역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11명(16.9%)이었음
-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19일 0시부터 전체 입국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실시
- 건강상태질문서 작성/국내 체류지 및 연락처 확인/자가진단 앱(App)을 통해 14일간 증상여부 등록
- 모든 입국자에 관한 해외여행력 정보는 DUR/ITS,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
-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지자체(보건소)로 통보하여 감시기간(14일) 동안 보다 적극적 관리

●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요 보도 (3.18. 기준)**

- 노동신문은 17일 ‘전염병을 대하는 심리적 반응과 심리 조절 방법’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증상 대처방법을 알렸음¹⁾ **최근 북한 사회 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심리적 동요가 증대되고 있음**을 반증함.
- 최근 북한 매체는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평안도와 강원도에만 7,000여명이 있다고 공개한 바 있음²⁾.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한 명의 확진자도 없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을 격리하고 있어 모순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지난 1월 중국과 국경을 폐쇄한 상태이고, 주민들의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으로 전해짐. 또한 노동신문을 통하여 격리자들을 위한 물품 지원(의약품, 생필품, 마스크 등) 활동을 홍보하여 왔음
- 하지만 최근 중국과 국경 봉쇄에 따른 **경제난이 심각해짐과 동시에 북한 내 관료들의 원자재 매점매석 및 부정부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음**³⁾
-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0일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언급⁴⁾

1) 국민일보 2020. 3. 30. 15:53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70500&code=61111611&cp=kd>)

2) 상동

3) 중앙일보 2020.3.11.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727100>

4) 아주경제 2020.3. 10. 기사 <https://www.ajunews.com/view/20200310124506020>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하여 시행함
 - * 이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됨
-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함
 - *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 한 것임
 - * 서울시는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기준이하 가구에 60만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본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지원 등 제외한 총 117만7천 가구 지원]

-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금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하였음
 - *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①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②실업급여 수급자 ③긴급복지 수급자 ④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직접선택...경기회복 기대]

- 또한,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 금액을 금년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함
-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됨
 - *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 30만→33만, 40만→44만, 50→55만원권 지급
 - *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며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됨
 - *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음

[행복e음 시스템 통한 소득조회로 신청절차 간소화, 3~4일내 지급...임시지원인력 850명 투입]

-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신청절차 최소화
 - *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월 30일(월)부터 받게 되며,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 됨
 - *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 하였고,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했으나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원할 계획
- 시민의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
- 신청 장소인 동주민센터에 소득·방역물품 추가 비치 등 방역 노력,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임
 - * 서울시 복지포털 : <https://wis.seoul.go.kr>

[생계곤란해진 정부지원 사각지대 메꾸는 실질적 민생지원대책...총 3,271억 예산 총동원]

- 서울시의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넓힌 실질적 민생 지원 대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하여 총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
-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위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3.24일 개최 될 예정인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밀접히 협력해 나갈 것임

● 서울시, 신도림역 등 구로콜센터 주변 검사 완료... 코로나19 바이러스 '불검출'

- 서울시는 구로구 콜센터의 코로나19 감염 사례 관련, 주변 대중교통시설 구로역와 신도림역, 1·2호선 지하철 객차에 대한 소독 및 바이러스 검사를 완료함
- 검사 결과, 표면 접촉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과 공기에서 모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
 - * 검사는 해당 시설 소독 완료 후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코로나19 확진 검사와 동일한 검사법인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법(RT-PCR)으로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확인함
 - * 시료는 역사 내 대합실·승강장·환승통로 등의 출입문,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개찰구, 의자와 객차는 출입문, 손잡이, 의자, 봉(손잡이 지지대)의 손잡이와 버튼 등 접촉이 가능한 부분을 도말 채취
 - * 공기 시료는 역사와 객차를 분리하여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장비를 활용해 여러 지점에서 모아 채취함

지하철 객차 및 역사 내 시료 채취 현황



구로구 콜센터 관련 지하철 검사 현황

구 분	총 계	신도림역 (2호선)	구로역 (1호선)	이용 객차 (1호선)	이용 객차 (2호선)
채취지점	-	승강장, 대합실, 환승통로	승강장, 대합실	10량	10량
지점수	63	17	14	16	16
검사결과	모두 불검출				

- 그밖에도 서울시내 14개 지하역사의 승강장, 대합실, 환승통로 등 143개 지점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나타남

기타 지하철 검사 현황

역사명	서울역 (1,4호선)	신도림역 (1,2호선)	이용 객차 (5호선)	광나루역 (5호선)	수서역 (SRT-3호선)	오금역 (3,5호선)	면목역 (7호선)
채취지점	승강장, 대합실	승강장, 대합실, 환승통로	객차 8량	승강장, 대합실	승강장, 대합실, 환승통로	환승통로	승강장, 대합실
지점수	12	17	27	8	11	1	11
역사명	청담역 (7호선)	상왕십리역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4,5호선)	성신여대 입구역 (우이-4호선)	동묘역앞역 (1,6호선)	안국역 (3호선)	경복궁역 (3호선)
채취지점	승강장, 대합실	승강장, 대합실	환승통로	승강장, 대합실, 환승통로	승강장, 대합실, 환승통로	승강장, 대합실	승강장, 대합실
지점수	9	4	3	11	13	8	8
검사결과	모두 불검출 (총 143 지점)						

-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시설을 즉시 방역하고,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검사 시설 모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음
 - * 앞으로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객차)과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120여개 시설에 대한 환경매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3조 6675억 원 확정**

- 2020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3조6675억 원이며,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확충(+300억 원, 120병실)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 위한 음압구급차 등 지원(+301억 원)
 - * (국가지정 음압병실 현황) 29개 병원에서 161개 음압병실, 198병상 운영 중
-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45억 원)
 - * 현재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 건립 진행 중
-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40억 원), 인수공통감염병(+10억 원)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 강화
 - * 기본계획 수립 및 장비비 등 반영되었으며,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설치 추진
-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설·장비 보강(+98억 원)
 - * (장비 예시) 유전자 증폭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 지원(+181억 원)
 - * 대구·경북 등 지역으로 파견된 의사, 간호사 등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 지원]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3,500억 원)
 - * 추경예산 3,500억 원 외에 예비비 3,500억 원 기존 편성 (총 7,000억 원)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0조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
-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 용자 지원(+4,000억 원)
-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 지원(+836억 원)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생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7만 가구) 및 법정차상위(31만 가구)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 분 지급(+1조242억 원)
 - * 1인 가구 기준 4개월 총액 : (생계·의료) 52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 40만 원
- 아동수당 대상자(263만 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1인당 월 10만 원) 4개월분 지급(+1조539억 원)
- 노인일자리아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 상당 유인(인센티브) 지원 (+1281억 원)
-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 생계비(11.9만 가구) 지원(+2,000억 원)
-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면(+2,656억 원)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하여 가정양육수당 예산 확대(+271억 원)
-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5269억 원에서 86조1944억 원으로 증가
 - * 이와 함께,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 추가 확보할 계획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별 내역

구 분	'19예산 (A)	'20년			주 요 내 역
		본예산 (B)	추경 (C)	추경 후 예산 (D=B+C)	
계	8,094,306	9,423,966	3,667,540	13,091,506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4,336	4,830	113,617	118,4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30,000백만원)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83,617백만원) * 특별재난지역 생활지원비 국비보조율 50→70% 인상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	398,225	398,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350,000백만원) ■ 보건소 음압특수 구급차 등 지원(+30,075백만원) ■ 특별재난지역 의료진 활동수당 지원(+18,150백만원)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7,253	3,860	4,536	8,3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비
○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	13,635	17,619	5,000	22,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 등 (+4,000백만원) ■ 인수공통감염병 연구(+1,000백만원)
○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5,878	5,778	9,770	15,5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유전자 분석실 설치, 분석 장비비 등
○ 의료기관 용자	-	-	400,000	4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경영안정화를 위한 용자자금 지원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	-	1,024,151	1,024,1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교육급여) 137만 가구 및 법정 차상위 31만 가구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
○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	-	1,053,904	1,053,9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 대상자(263만명)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922,761	1,201,501	128,148	1,329,6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활동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수령 시, 20% 상당 인센티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92,330	815,717	27,138	842,8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하여 양육수당 예산 확대(+129천명)
○ 긴급복지	162,587	165,628	200,000	365,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장화	113,449	126,420	37,500	163,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병원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5,972,077	7,082,613	265,551	7,348,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역 건강보험료 하위 20% 가입자에 대해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227,497백만원) ■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하위 50% 가입자에 대해 3개월간 건강보험료

구 분	'19예산 (A)	'20년			주 요 내 역
		본예산 (B)	추경 (C)	추경 후 예산 (D=B+C)	
					50% 감면(+38,054백만원)

● **한국-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임상연구 국제 협력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정부가 주도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임상 코호트 연구를 위한 실무회의를 3월 18일(수) 오후 5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힘
 - * 코호트: 특정 질병 발생 요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역학적으로 동일한 집단
- 이번 실무회의는 국립보건연구원 및 국내 의료진이 주관하는 코로나19 임상역학 연구에 WHO가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진됨
- 국내 코로나19 임상 및 면역 양상 연구과제 소개, 임상연구를 위한 연구조사서 양식 및 자료수집 방법, 자료 분석 및 활용 계획, WHO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임
 - * WHO는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제 반응, 중증도 사망사례의 특징, 임상적 바이러스 특성 등에 관심이 많고, 한국 이외 다른 국가와의 국제협력 연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이번 한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코로나 19에 대한 국제지침의 수정 및 보완을 시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상호정보 공유 및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역학적 및 면역학적 연구에 대한 긴급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음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국내 확진자 면역학적 특성 연구」 (3.16 선정평가 완료)
 - *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역학적 연구」 (3.16 선정평가 완료)

●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대응 방안**

-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함
 - *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② 정책자금 대출 지연 해소 등을 위한 집행체계 개선, ③ 재개장 지원 및 내수활성화 대책 준비
 - * 이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동안 해왔던 임대료 등 지원, 금융지원, 세금부담 완화 등에 더하여, 더욱 강화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필요했기 때문
-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72조 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음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형태로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참고
-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또한 3.57조 원(추경 2.57조 원)으로 확대함
-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금 중 1.1조 원을 대구·경북 지역용으로 별도 배정하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조건을 우대하여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더욱 완화하기로 함
 - * (대출한도) 최대 0.7억 원, (금리 인하) 2.27% → 1.5% (연말까지 이자 면제)
- 또한, 정부는 정책자금의 대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체계를 개선할 계획임
 - * 늘어나는 정책자금 지원 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63명,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11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
 - * 보증심사 시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전결권을 하향하는 등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신속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탁보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고객 편의 제도를 도입함
 - *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시중 은행을 바로 방문하여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 * 정책자금 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3. 6.), 센터 내 번호표 발급기 비치
- 이에 더하여 정부는 다양한 내수활성화 대책 또한 추진,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고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함
 - * (지원내용) 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 지원
- 아울러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권역별

관측 행사를 개최할 계획임

* 관측행사는 브랜드K, 백년가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
-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여 내수회복을 앞당길 계획임

* 경품·할인행사, 문화공연, 이벤트, 온라인시장 진출, 방역 활동 등

●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 및 돌봄 강화 방안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하여 4월 5일(일)까지 추가로 2주간의 휴관 연장을 권고하기로 결정함

* 이미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휴관 실시

- 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조치임

* (교육부) 유치원과 학교 추가 개학 연기(3. 23. → 4. 6.),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휴원 추가 연장 결정(3. 22. → 4. 5.)

- 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 조치한 15개 이용시설임

휴관 연장 권고 사회복지 이용시설

- 아 동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 ※ 어린이집 휴원 추가 연장 명령 조치(3.17)
- 노 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신규 추가)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자리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 ※ 여럿이 함께 활동하는 일자리 유형 대상
- 그 외 :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 이번 휴관 연장 권고는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집회·집단행사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임

- 보건복지부는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향후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임

* 휴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활동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

* 또한,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 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에 따른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의 탄력적 운영,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운영, 일자리사업 참여자 급여 선지급 등 사회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 긴급복지지원 2,000억 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시생활지원 사업비 1조242억 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코로나19가 드러낸 공공의료 시스템 부재

김명희(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

-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공공의료 자원부족 문제가 수면위로 들어났음**
 -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집단 감염 대응 공공의료 체계에서의 ‘만성적 인력부족’,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어 왔음**
 - 정신병 환자의 감염병 치료 문제, 결핵환자들의 복합만성질환 치료 문제, 에이즈 환자의 입원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전 사회적인 공공의료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자원부족 문제에 직면하였음**
 -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반대하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도 최근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인 지원’, ‘공공병원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정책을 제안하였음
 - 하지만 2016년도 기준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율은 5.8%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임. 공공병원 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방역활동과 같은 공중보건 역량도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임
- **공공의료 실무인력들의 고용 불안정성 및 공공의료 조직의 불안정 구조 때문에 공공의료 토대가 취약해져왔음**
 - 감염병관리 **실무자들의 대다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함.** 질병관리본부는 열악한 인적자원 문제를 회피하는 반면 지침서 수준의 권고사항을 전달하거나 현장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는 것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근본적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였음
 - 공공·민간 협력 사업 간호사는 계약직 간호사로 최대 2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음
 - 인력의 고용안정성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인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조직적 안정성도 낮음.** 현재 감염병관리 지원단은 ‘민간위탁조직’ 기관으로써 3년 마다 위탁계약을 다시 해야 함. 또한 ‘민간위탁기관’은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및 지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 못함
 - 서울시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마찬가지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
- **반복되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돌아가는 현실**
 -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노무현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2016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문재인 정부의 「필수의료 지역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등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제시되었지만 실제 정책 집행 효과는 미미하였음**
 - 지역격차 해소, 비시장성 필수의료 보장,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 거버넌스 체계,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정책들의 집행 수준이 미미하였음
 - **광역지자체 차원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세우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계류되는 경우가 많음.** 이는 공공병원의 사회적 편익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의료시설 부문 사업 예타 표준지침 내” 건강편익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기 때문임
- **공공의료 정책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부터 시작해야 함**
 - 공공의료를 위한 법적·제도적 세부장치들을 보완해 나가야 함. 예비조사 타당성 면제되는 사업범위 내 공공의료 사업을 포함하는 수준까지 발전되어야 함. 공공의료는 시민의 건강, 사회적 안녕을 도모하는 일이므로 다른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3. 주요 뉴스

발생·치료 현황

● 대구 한사랑요양병원서 74명 코로나19 무더기 확진...요양병원 5곳서 총 87명 확진

대구 서구 한사랑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4명이 집단발생했다. 확진자들은 입원환자가 57명이고, 직원이 17명이다. 집단확진은 대구시가 실시중인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390여곳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재까지 대구시의 전수검사는 전체 대상의 30% 가량 진행됐는데, 향후 진행정도에 따라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한사랑요양병원은 지난 16일 간호과장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전체 종사자 71명과 입원환자 117명 대해 전수검사를 한 결과 환자 57명과 종사자 17명 등 총 7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종사자 4명은 병원에 입원했고, 10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조치됐다. 대구시는 18일 새벽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 57명은 이날 중으로 병원에 전원조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들 병원에 대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데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대구시의 전수검사는 전체 대상의 30% 가량 진행됐다.

출처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81058001&code=940100#csidxfdeef57607ad3f3ad32348246bcb0ff)

● 국내 확진자 10명중 2명 완치...1540명 격리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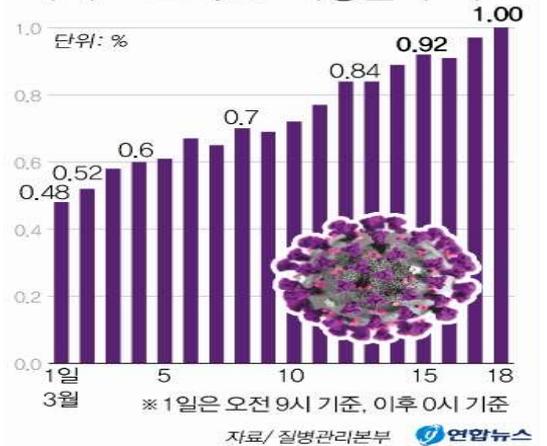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2명 가까이가 완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체 확진 환자의 18.3%가 격리해제된 상태"라면서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413명이며 이 중 1540명이 격리해제됐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https://www.ajunews.com/view/20200318153410818>)

● 방역당국 "코로나19 환자, 중증 이상 82명...58명은 '위중'"

확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1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현재 중증 단계 이상으로 분류된 사람은 총 82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서 중증으로 분류되는 환자는 24명, 위중하다고 분류되는 환자는 58명이다. 방역당국은 기계 호흡을 하고 있거나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ECMO)를 쓰는 환자를 위중하다고 본다. 중증 환자는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지만, 폐렴 등의 증상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산소치료를 받거나 38.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환자를 뜻한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18125700017?input=1195m>)

국내 '코로나19' 치명률 추이



● 코로나19 국내 전파양상 달라졌다...수도권·중국 밖 국가 '축각'

18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두 달이 가까워지면서 전파 양상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었다. 국내 첫 환자는 올해 1월 20일 발생했다. 신천지대구교회 슈퍼전파 사건 이후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왔던 확진자는 이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확진자가 유입되는 양상도 바뀌었다. 초기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유럽발 입국자의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이 대구·경북 지역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단감염을 잡지 못하면 제2의 대구·경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코로나19의 해외유입 양상도 초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최근에는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해외에서 유입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55명 중 27명이 유럽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 세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초강수'를 둔 상태다.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 연합뉴스(<https://m.yna.co.kr/view/AKR20200317184600017>)

확진자 중 해외유입 추정사례 현황



박영석 기자 / 20200318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YONHAPNEWS

●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 격리해제는?... "확진 7일째 검사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가 속속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이들에 대한 격리해제 기준도 내놓았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지방자치단체용) 7-3판에서 확진 환자를 유증상과 무증상으로 나눠 격리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7일째 유전자 검사(PCR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이후 검사 주기(10일째, 14일째 등)는 의료진이 판단해서 결정하되, 역시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면 격리해제를 결정하도록 했다. 반면, 증상이 나타난 '유증상' 확진자는 임상 기준과 검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격리 해제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지침을 수정하는 데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권 부분부장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일부 바이러스를 많이 뿌리기도 하고, 경증인 경우에도 전파력이 높으니까 하면, 마찬가지로 무증상 확진 환자에서도 어느 정도 바이러스의 배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대응 지침이 수정 배포됐다"며 "일선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받아 7-3판으로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https://m.yna.co.kr/view/AKR20200316179351017>)

4. 격리해제

가.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하여 자가격리 또는 사실격리 가능하나, 격리해제는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은 다음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①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②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10일째, 14일째 등)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진행하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 '팬데믹'에 한국 찾는 WHO..임상·바이러스 양상에 '주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연구에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와 18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는 국내 전문가와 연구 참여자는 물론 WHO 임상팀 및 코로나 19(COVID-19) 자문위원 등도 참석하고, 회의는 중앙임상위원회 팀장을 맡고 있는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을 중심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한다. 임상 자료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물론 중앙임상위원회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의 자료까지 공유될 전망이다. WHO는 여기에 혈액, 소변, 대변, 호흡기 가검물 등 4개 검체를 통해 그 안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양 ▲바이러스 존재 여부 ▲증상 발현 및 바이러스 소멸 시점 등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다고 방대본은 전했다. 무엇보다 한 환자가 감염되고 나서부터 치료되기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임상 경과에 대한 추적조사(코호트)를 진행한다는 데 이번 연구에 의미가 있다. 이제 막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돼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세계 각국에서 확진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뉴스시스(<https://news.v.daum.net/v/20200317184855851>)

● 일본 “신종 코로나 장기화 전망... 새로운 일상 준비해야”



중앙방역대책본부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맞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역수칙 준수를 상당기간 생활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대본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위기대책전문위원회를 개최한 한편, 외국의 전망들을 참고한 결과 대부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기간에 소멸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로 각 사업장, 기관, 학교 등은 아파도 나온다는 문화를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바뀔 수 있도록 근무형태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밀집된 근무환경 등을 적극 개선하고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시행하며 온라인·재택근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고위험군의 감염을 막기 위한 세심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르신들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는 방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또한 생활 및 업무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 등의 표면을 깨끗이 닦기 등을 실천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출처 : 한국일보(<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77720>)

● 초고속 처리된 '코로나19 추경'...TK지원·감염병 대응 대폭 증액

국회 17일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직접 연관된 예산을 늘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 11조7천억원을 유지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 3천300억원, 목적예비비 3천500억원 등을 삭감하여,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1조394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1조1천638억원, 아이돌봄·민생안정 7천696억원 등의 사업에 추가 배정됐다.



당초 정부는 TK 지역 지원 예산으로 6천187억원을 편성했는데, 국회 심사과정에서 1조원 넘게 증액되며 총예산이 1조6천581억원으로 늘었다. TK 지원 예산은 ▲ 재난대책비 4천억원 ▲ 피해점포 회복지원 2천262억원 ▲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천111억원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원 ▲ 긴급복지자금 600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대출·용자 형태가 아닌 국고지원 형태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음압병실, 의료인력 지원, 마스크 생산 확대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예산을 1천483억원 증액했다. 음압병실 확대 규모를 정부안(120개)보다 150개 많은 270개로 하면서 당초 300억원의 예산이 675억원으로 늘었다.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파견비도 182억원 책정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m.yna.co.kr/view/AKR20200317206900001>)

● 서울시 117만여가구에 30만~50만원 긴급지원...3천271억원 투입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제공키로 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약 117만7천 가구이며, 3천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 후 3~4일 이내에 지원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원활한 신청과 지급을 위해 재산 기준은 확인 대상에서 빼고 소득기준만 확인키로 했다. 또 시스템을 통해 가구별 소득을 조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425개 동주민센터에 지원인력 850명을 투입키로 했다. 출처 : 뉴스1(<https://www.news1.kr/articles/?3876969>)

● 서울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높은 사업장 제보"

서울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병한 콜센터와 업무환경이 유사한 '밀접접촉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17일부터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집단감염 위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발견하면 누구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온라인민원창구 응답소로 제보하면 된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현장점검 결과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사업장 환경개선 컨설팅도 실시한다. 사업장 내 코로나19 관련 노동자 발생동향 파악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성해 작업장 내 청결유지, 노동자·방문객 위생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무급휴직 강요, 계약해지, 임금체불 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대책반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출처 : 뉴시스(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7_0000958659&cID=14001&pID=14000)

● 코로나 역유입 차단, 입국자 사후 관리통제에 달렸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지면서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를 포함한 각국이 속속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감염원 역유입 방지가 중차대한 과제로 떠올랐다. 실제 최근 국내 입국자 중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증가 추세다.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발 확진자가 중국발 확진자 숫자를 넘어섰다. 정부가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특별 입국 절차를 밟도록 한 이유다. 이 조치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루 1만3,000명 정도의 입국자는 모두 1대 1로 호흡기·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입국 후 증상 여부를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사실상의 국경 봉쇄까지 주장하지만, 외국과의 경제 협력에 사활이 걸린 우리나라의 상황, 문을 닫지 않고도 외부 위험 요인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현 단계에서 적절해 보인다. 지난해와 비교해 입국자 숫자가 10분의 1 규모로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정부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입국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특별 관리 대상자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10% 정도라고 한다. 무증상 감염자가 적지 않게 나온다는 점에서 입국자를 관리하는 방역 당국,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입국 금지라는 최후의 카드는 남겨 두되 지금은 입국자 사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때다.

출처 :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71623318766?did=NA&dtype=&dtypecode=&prnews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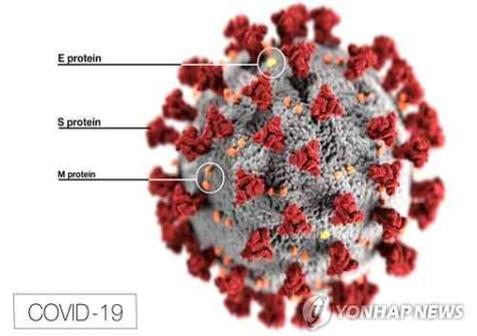
● 사이언스紙가 꼽은 韓 코로나19 성공 비결 3가지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가 유럽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가 된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의 희망이자 모델로 떠올랐다고 18일 보도했다. ①감염자 격리·끈질긴 접촉동선 추적-한국이 코로나 확산을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주된 배경을 감염자 격리와 접촉 동선을 추적하려는 끈질긴 노력에서 먼저 찾았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출현한 후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진단업체들과 협력해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2월7일 이를 승인했다"며 한국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②광범위하고 체계화된 진단 프로그램-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잘 조직된 검사 프로그램도 핵심 성공 비결로 꼽았다. ③메르스 극복 경험과 개선된 제도-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거치면서 쌓은 경험과 교훈도 성공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메르스 이후 법을 바꿔 바이러스 양성 반응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기타 자료를 수집한 뒤 행적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확보했고, 국민들이 확진자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이언스는 "신천지 외에 새로운 감염 집단이 나타나고 감염 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사례가 20%에 이른다"며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1814545091755>)

● "코로나19, 공기 중에서 3시간 지나면 12.5% 생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수시간, 물체 표면에서는 며칠간 생존해 전염성을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과학자들이 실제 환경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 실험한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 실험은 기침과 재채기할 때 나온 비말을 통해 바이러스가 옮겨질 때 최소 3시간 동안 에어로졸(공기 중에 떠 있는 미립자)에서 생존한 채로 남아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에서는 3일 후에도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바이러스가 활동을 중지하는 비활성화까지 걸린 시간은 판지 위에서 24시간, 구리의 경우 4시간이 걸렸다. 연구팀은 반감기 기준으로 공기 중에 떠있는 바이러스 중 절반이 기능을 상실하는 데까지 66분이 걸린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3시간 가량이 지나면 생존 가능한 바이러스양이 12.5%로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스테인리스에서는 바이러스의 절반이 비활성화 상태로 되기까지 5시간 38분이 걸렸고, 플라스틱에서는 6시간 49분이 소요됐다. 판지에서는 4시간 30분이었지만 연구자들은 이 결과에 많은 가변성이 있어 숫자를 해석하는 데 주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구리에서는 반감기까지 가장 짧은 46분이 걸렸다.

출처 : 연합뉴스(<https://m.yna.co.kr/view/AKR20200318017500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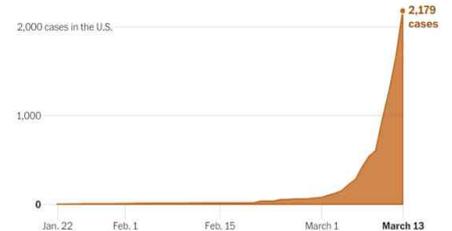
● “中 감염자 86%, 코로나19 초기 당시 공식 기록서 누락”

중국이 코로나19로 본격적인 이동제한 및 봉쇄령을 시행하기 전, 약 86%의 감염자가 증상이 미약하게 나타나거나 감염경로가 정확하지 않은 ‘스텔스’(Stealth) 전파자 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공동 연구진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당시 눈에 띄는 증상이 없어서 당국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공식 기록에서도 누락된 ‘스텔스 전파자’가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를 이끈 제프리 샤먼 컬럼비아대 환경보건학 교수는 “역학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의 발생과 전염병의 확산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이러한 ‘스텔스 감염자’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 서울신문(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18601012&wlog_tag3=naver)

● WP의 '빨간공 시뮬레이션' 결론 "사회적 거리두기 가장 효과"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가 사회적으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5월까지 미국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1억 명에 다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션 시뮬레이션도 선보였다.



WP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역 봉쇄는 전염병 억제에 큰 효과가 없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는 사각형 틀 안에 장벽을 설치했다. 그러자 장벽 안쪽에 있던 공들이 순식간에 전부 감염됐고, 이후 틈새를 통해 빠져나간 빨간 공 몇 개가 나머지 구역에 있던 공들을 빠르게 감염시켰다. WP는 "보건 전문가들의 말대로 병에 걸린 이들을 건강한 이들로부터 완벽히 격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됐다"고 분석했다. WP는 확진자 증가세를 완화할 유일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제시했다.

출처 :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23732587>)

● Spanish government nationalises private hospitals to combat spread of coronavirus
(스페인 정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위해 민간병원 국유화)

스페인 정부가 COVID-19 확산이 급증하는 것에 대응 전략으로 모든 민간병원을 국유화하기로 했다. 스페인 보건복지부 장관 Salvador Illasms 바이러스 확산 종식을 위해 이 같은 단계를 발표했다. 장관은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에게 국가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스페인은 중국 외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최악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종식을 위해 여러 가지 특별한 전략단계를 취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학교와 공공기관의 폐쇄했다. 시민들에게는 일을 하거나 식료품 구매, 치료와 같은 필수적 사안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 할 것을 당부했고, 마드리드 슈퍼마켓과 약국을 제외한 식료품점과 상점들을 폐쇄했다. 월요일 현재 스페인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9,191명이고, 사망자는 309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영국 노동당 수장인 Jeremy Corbyn은 NHS에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당 300파운드를 청구한 민간의료기관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Corbyn은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NHS의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일일 8,000개의 민간병상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일 2백4십만 파운드를 지불하기로 한 복지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토요일 트위터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코로나바이러스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병상은 NHS에서 무상으로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THE LONDON ECONOMIC

[\(https://www.thelondoneconomic.com/news/spanish-government-nationalises-private-hospitals-to-combat-spread-of-coronavirus/17/03/\)](https://www.thelondoneconomic.com/news/spanish-government-nationalises-private-hospitals-to-combat-spread-of-coronavirus/17/03/)

● '인구 60% 감염으로 집단 면역 만들자' 영국 정부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감염병 전문가가 "한국" 언급하며 한 말

영국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집단 면역’ 방침을 발표했다. ‘집단 면역’ 방침은 지난 13일, 패트릭 발란스 영국 최고과학고문이 BBC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으로, “일종의 집단 감염을 발생시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면역이 생기도록 해 ‘2차 충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감염 대상인 60%는 저위험군인 젊은 세대를 지칭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코로나19가 한 번 걸리면 다시 걸리지 않는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위험한 방법’, ‘사실상 손 놓은 것’이라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윌리엄 해네지 하버드대 교수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다. 하버드대에서 함께 일하는 미국인 동료들도 ‘집단 면역 전략’을 듣고 풍자 개그 같은 게 아니냐고 생각했을 정도다. 하지만 이걸 현실이었다.”라고 지적하며 “바이러스는 한 나라를 완전히 멈춰버릴 수 있다”며 ‘우한,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의 전철을 밟지 말고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으로부터 배우라’고 조언했다. “강력한 감시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합으로,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통제하기 시작한 듯한 한국의 선례를 잘 봐두어야 한다. 팬데믹 초반부터 감염자들이 나왔지만 최악의 결과를 최대한 완화시키고 있는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중 특히 한국은 심각한 집단 발병이 일어난 곳이라는 점에서 특히 더 참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HUFFPOST(https://www.huffingtonpost.kr/entry/uk-coronavirus-herd-immunity_kr_5e705b20c5b6eab7793b6a0a)

● 日, 전국민에 현금지급 검토...2009년 금융위기 때는 14만원씩 줬

일본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민당은 이달 말까지 현금 지급을 중심으로 한 경제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초쯤 정식으로 대책을 발표한다. '리먼 쇼크'로 불리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엔 아소 다로 내각이 국민 한 사람에게 1만2000엔(약 13만8000원)씩 지급했다. 18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2만 엔(약 23만원)씩 줬다. 모두 합쳐 약 2조엔(약 23조원) 규모였다. 이번엔 지급 규모를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적어도 15조엔(약 170조원)은 될 것"이라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17일 자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엄중한 상황인 경제를 V자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과감하고 강력한 경제대책을 전례에 구애받지 말고 대담하게 수립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현금 지급 효과를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09년 당시에도 "(불안한 심리 탓인지) 현금을 쓰지 않고 저금해 버리는 등 소비 진작으로 연결되진 않았다"는 지적이다. 출처 :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23732851>)

● 트럼프 정부 '1조 달러' 코로나19 경기부양책..."1000달러씩 현금 지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조달러(약 1230조원)에 달하는 부양책을 추진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이 시장이 받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투입한 자금을 넘어서는 규모다. 미국인에게 1000달러씩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될 경우 미국 실업률이 20%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현금지급 방안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1000달러 이상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고, 므누신 장관은 부유층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소득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81006001&code=970201)

● 일본 공적보험 적용해도 '코로나19 검사 난민 현상' 여전

일본 정부는 이달 초 코로나19 검사에 공적 보험을 적용하고 본인 부담금도 공적 비용으로 지원해 민간 병원에서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검사를 받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도는 '코로나19 검사 난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에 공적 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6일부터 16일까지 보험이 적용된 검사 건수는 413건으로, 이 기간 전체 검사 건수의 3%에 그쳤다. 민간 병원에서도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이른바 '행정 검사'와 마찬가지로 37.5℃ 이상 고열이 나흘 이상 지속해야 코로나19 검사를 해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의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는 한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검사 건수는 1천건 수준으로 일본이 보유한 검사 능력 대비 7분의 1에 불과하다. 코로나19 검사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경증 환자와 무증상자는 검사를 받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주위 사람에게 감염시킬 위험이 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18144200073?input=1195m>)

● 가족의 죽음,환자의 절규 '생생'...우한 시민·의료진 극심한 '트라우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인 중국 우한에서 가족의 죽음이나 환자의 마지막 절규를 지켜보아야 했던 주민들과 의료진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이 완치돼 퇴원한 환자들은 지역 사회나 학교,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전염병을 앓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토로하고 있다. 상하이 정신건강센터 부소장인 왕젠은 코로나19 중증환자가 많았던 우한 진인 탄병원의 경우 의료진의 30% 가량이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상하이 심리 지원팀을 이끌고 우한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심리 상담 지원을 했다.

[붙임1]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

● 예시1. 대한의사협회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한 단계 상승
- 각 단계에서 기준 증상이 해결되고 48시간 지나면 한 단계 아래로 전원가능

확진자 구분	분류 기준
무증상	• 아래조건 모두 충족 ① 의식명료 ② 50세 미만 ③ 기저질환 없음 ④ 해열제 복용없이 37.5도 미만 ⑤ 비흡연자
경증	•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50세 미만 ② 기저질환 없음 ③ 해열제 복용하여 38도 이하 ④ 호흡곤란을 제외한 1개 이상 증상* ⑤ 흡연자
중증	•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② 호흡곤란 또는 영상소견상 폐렴
위중	① 의식이 떨어진 경우 ② 중증의 호흡곤란 ③ 산소포화도 90% 이하 ④ 영상소견에서 중증도의 양측성 폐렴 또는 50% 이상 폐렴

* 증상 : 두통, 기침, 인후통, 가래, 피로감, 근육통, 호흡곤란

※ 출처 :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2020.3.5.)

● 예시2. 수정된 조기경고점수(Modified Early Warning Score : MEWS)

변수	3	2	1	0	1	2	3
맥박(회/분)		≤40	41~50	51~100	101~110	111~130	≥131
수축기 혈압(mmHg)	≤70	71~80	81~100	101~199		≥200	
호흡수(회/분)		≤8		9~14	15~20	21~29	≥30
체온(℃)		≤35.0	35.1~36.0	36.1~37.4	≥37.5		
의식수준				정상	목소리 반응	통증 반응	무반응

* 조기경고점수(early warning score) : 환자가 급격한 위급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

● 중증도 분류에 대한 조치사항

위험정도	경증(저위험군)	중등중(중등도위험군)	중중(고위험군)	최중중(고위험군)
점수	0~4점	5~6점	7점 이상	7점 이상
모니터링 빈도	6~12시간	1~2시간	지속	지속
조치사항	•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 기계호흡 등이 필요	• CRRT, ECMO 필요 • 비가역적 뇌손상, 다발장기부전, 말기 만성 간질환 또는 폐질환, 전이성 종양 같은 사망에 직면한 말기질환을 가진 환자

● 예시3. 영국 조기경고점수(National Early Warning Score : NEWS)

변수	3	2	1	0	1	2	3
산소포화도	≤91	92~93	94~95	≥96			
산소투여여부	예	예	아니오	아니오			
맥박	≤40		41~50	51~90	91~110	111~130	≥131
수축기 혈압	≤90	91~100	101~110	111~219			≥220
호흡수	≤8		9~11	12~20		21~24	≥25
체온	≤35.0		35.1~36.0	36.1~38.0	38.1~39.0	≥39.1	
의식수준				정상			이상

- 5점 이상 중등도, 7점 이상 중증

※ 예시2,3 출처 : 대한중환자의학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대한감염학회·대한흉근요법학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중증환자용). (2020.3.2.)

● 고위험군

고위험군 연령	• 65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1판)」 (지자체용)

[감염병전담병원 현황]

2020. 3. 13. 보도자료

지역(시도)	개소	기관명
서울	5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부산	1	부산의료원
대구	7	대구의료원,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중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달서구)
인천	5	인천의료원, 인하대학교병원, 길병원, 인천적십자병원, 백령병원
광주	2	빛고을전남대병원, 제2시립요양병원
대전	4	국군대전병원, 시립제2노인전문병원, 충남대병원, 대전보훈병원
울산	5	울산대학교병원, 동강병원, 울산시립노인병원, 중앙병원, 울산병원
세종	1	NK세종병원
경기	7	수원병원, 안성병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성남시의료원
강원	5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충북	2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남	4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전북	3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전남	3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경북	6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영주적십자병원, 국군대구병원(경산)
경남	4	마산의료원, 국립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제주	3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총합	67	17개 시도, 67개소

※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의료기관(2) : 울진군의료원(경북), 고려요양병원(울산)

※ 출처(3.1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539)

[국민안심병원 현황]

[서울시]

2020. 3. 18. 기준

연 번	자치구	기관명	신청유형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베드로병원	외래진료	02-1544-7522
2	강남구	나누리병원	외래진료	1688-9797
3	강남구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019-2114
4	강남구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외래진료	02-6925-1111
5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440-8114
6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외래진료	1588-4100
7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25-1111
8	강서구	나누리병원	외래진료	1688-9797
9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522-7000
10	관악구	심정병원	외래진료	02-1588-3330
11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877-8875
12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1533
13	광진구	혜민병원	외래진료	02-2049-9000
14	구로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626-1114
15	구로구	구로성심병원	외래진료	02-2067-1500
16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	외래진료	02-858-0100
17	금천구	희명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04-0002
18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외래진료	02-970-8000
19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외래진료	02-950-1114
20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외래진료	02-970-2114
21	도봉구	한일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01-3114
22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58-8114
23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77-3675
24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외래진료	02-966-1616
25	동대문구	코리아병원	외래진료	02-2281-9999
26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70-2114
27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6299-1114
28	서대문구	동신병원	외래진료	02-396-9161
29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99-1004
30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1511
31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90-8114
32	성북구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20-5114
33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외래진료	02-912-0100
34	성북구	서울척병원	외래진료	1599-0033
35	송파구	경찰병원	외래진료	02-3400-1114
36	송파구	한솔병원	외래진료	02-2147-6000
37	양천구	메디힐병원	외래진료	02-2604-7551
38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650-5114
39	양천구	홍익병원	외래진료	02-2693-5555
40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661-7575
41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외래진료	1899-1475
42	영등포구	새길병원	외래진료	02-1522-0075
43	영등포구	성애병원	외래진료	1811-8114
44	영등포구	영등포병원	외래진료	02-2632-0013~8
45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29-5114
46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709-9114
47	은평구	본서부병원	외래진료	02-3156-5000
48	은평구	은평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811-7755
49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외래진료	02-353-5511~9
50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001-2001
51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5700
52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외래진료	02-2002-8000
53	종로구	세란병원	외래진료	02-737-0181
54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60-7114
55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외래진료	02-2270-0114
56	중랑구	녹색병원	외래진료	02-490-2000
57	중랑구	동부제일병원	외래진료	02-437-5011
총합	22개 자치구	57개소	외래 33개소 / 외래 및 입원 24개소	

지역(시도)	기관명
부산(34)	BHS한서병원, 광혜병원, 구포성심병원, 기장병원, 김원목기념봉생병원, 대동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동래봉생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민병원, 부산고려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성모병원, 부산센텀병원, 부산우리들병원, 삼육부산병원, 서부산센텀병원, 새우리남산병원, 세웅병원*, 에스병원, 영도병원, 오성병원, 온종합병원, 우리원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일신기독병원, 좋은강안병원, 좋은문화병원, 좋은삼선병원, 한양류마디병원, 해동병원, 해운대부민병원*, 화명일신기독병원, 효성시티병원
인천(24)	기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기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김단탐병원*, 길병원*, 니누리병원(부평구), 니누리병원(미추홀구), 나사렛국제병원*, 나은병원*, 뉴성민병원, 더드림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부평세림병원, 비에스종합병원*, 성모월병원, 온누리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기독병원, 인천백병원, 인천사랑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한길안과병원, 한림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대구(17)	경북대학교병원, 광개토병원, 광병원, 구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가톨릭병원, 대구보광병원, 대구시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드림병원, 삼일병원, 서대구병원, 세강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참조은병원, 천주성삼병원, 푸른병원, W병원
광주(5)	KS병원, 광주기독병원, 서광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첨단종합병원
대전(6)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한국병원, 유성선병원
울산(9)	21세기좋은병원, 동강병원, 서울산보람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병원, 울산보람병원, 울산시티병원, 좋은삼정병원, 중앙병원
경기(73)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강남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광명성애병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김포우리병원*, 니누리수원병원, 남양디에스병원*, 남양주한양병원, 뉴고려병원*, 다니엘종합병원, 다보스병원, 단원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동수원병원, 메디인병원, 명지병원*, 바른마디병원, 바른세상병원, 박병원*, 박애병원*, 베리굿병원, 부천우리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제생병원*, 분당척병원, 사랑의병원, 서울나우병원, 성베드로병원, 세종병원*, 세종여주병원*, 센트럴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안성성모병원, 안양월스기념병원,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연세새로운병원, 예순병원, 오산한국병원, 온누리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원광종합병원, 월스기념병원, 의정부백병원, 이천엘리아병원, 이춘택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일산복음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 정병원*, 제이에스병원, 조은오산병원, 중앙대의료원교육협력현대병원*, 지샘병원, 지우병원, 참조은병원, 평택굿모닝병원*, 평택성모병원*, 포천우리병원, 하남SD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화성중앙종합병원*, 히즈메디병원
강원(8)	강릉고려병원, 강릉아산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성지병원, 속초보광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홍천아산병원
충북(9)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베스티안병원, 제천명지병원, 제천서울병원, 진천성모병원, 청주성모병원, 하나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
충남(12)	단국대학교병원*, 당진종합병원, 백제병원, 본정형외과병원, 서산중앙병원, 서울대정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아산충무병원*, 예산종합병원, 천안우리병원, 천안충무병원*, 현대병원
전북(10)	고창종합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대자인병원, 동군산병원*, 예수병원*, 익산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병원*, 호성전주병원
전남(13)	고흥종합병원*, 녹동현대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시의료원, 목포중앙병원, 목포한국병원*, 성가톨릭병원*, 순천한국병원*, 여수전남병원, 여수제일병원, 여수한국병원, 여천전남병원, 장흥종합병원
경북(15)	경산중앙병원, 김천제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문경제일병원, 마른유병원, 상주성모병원, 세명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안동병원, 안동성소병원, 좋은선린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우리병원
경남(29)	365병원, CNA서울아동병원, 갑을장유병원, 거북백병원, 거창적십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김해복음병원, 대우병원*, 마산서울병원, 맑은샘병원, 밀양윤병원, 반도병원, 베데스다병원, 삼천포서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에스엠지연세병원*, 연세에스병원, 조은금강병원, 진영병원, 진주고려병원, 진주마른병원, 진주복음병원, 진주세란병원, 진주제일병원, 창원제일종합병원, 청아병원, 한일병원, 함양성심병원
제주(4)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총합	15개 시도 268개소

별(*)표시 기관은 외래/입원/선별진료소 운영기관 그 외 외래진료만 운영. 출처(3.18) : 대한병원협회, 국민안심병원 최신현황 (<https://www.kha.or.kr/>).

[붙임4] 서울시 선별진료소 목록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구보건소*	02-3423-5555	38	서초구	서초구보건소*	02-2155-8093
2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02-3410-2114	39	서초구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1588-1511
3	강남구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114	40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02-570-8000
4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02-440-7000	41	성동구	성동구보건소*	02-2286-7172
5	강동구	강동구보건소*	02-3425-8565	42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114
6	강동구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02-2224-2358	43	성북구	성북구보건소*	02-2241-6022
7	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02-2225-1100	44	성북구	(학)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안암병원) *	02-1577-0083
8	강북구	강북구보건소*	02-901-7706 02-901-7704	45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02-2147-3478-9
9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2-2600-5868	46	송파구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02-3010-3114
10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02-1522-7000	47	송파구	경찰병원*	02-3400-1124
11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02-879-7131	48	양천구	양천구보건소*	02-2620-3856
12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신사동 코로나19 건강상담소	02-879-7241	49	양천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02-1566-6688
13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02-1877-8875	50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02-1666-5000
14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02-450-1937	51	영등포구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953
15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자양보건지소	02-450-7090	52	영등포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02-829-5114
16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02-1588-1533	53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02-1661-7575
17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02-860-2003	54	영등포구	성애의료재단성애병원*	02-840-7114
18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가리봉동선별진료소*	02-860-2018	55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02-829-7800
19	구로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02-2626-1114	56	용산구	용산구보건소*	02-2199-8371-4
20	금천구	금천구보건소*	02-2627-2717	57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02-709-9114
21	금천구	독산보건분소	02-2627-1967	58	은평구	은평구보건소*	02-351-8640
22	금천구	희망병원	02-2219-7231	59	은평구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	02-3156-3022
23	노원구	노원구보건소*	02-2116-3300-4	60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02-300-8060
24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02-970-8000	61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02-958-2114
25	노원구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02-950-1114	62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02-383-0129
26	도봉구	도봉구보건소*	02-2091-4483	63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02-2148-3557
27	동대문구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283	64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02-2001-2001
28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02-958-8114	65	종로구	서울지구병원*	02-397-2018
29	동대문구	삼육 서울병원*	02-1577-3675	66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650
30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병원*	02-920-9118-9	67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02-2270-0114
31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02-966-1616	68	중구	중구보건소*	02-3396-5181
32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02-820-9465	69	중구	중구보건소 명동선별상담소	02-3396-5181
33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신대방선별진료소	02-832-9404	70	중랑구	중랑구보건소*	02-2094-0800
34	동작구	보라매병원*	02-870-2114	71	중랑구	서울의료원*	02-2276-8333
35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02-3153-9037	72	서초구	서초 소방학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36	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02-330-8726	73	송파구	잠실주경기장	
37	서대문구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02-1599-1004	74	은평구	서울시립은평병원	
				75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 검체채취 가능

* 출처(3.18)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마이크로페이지(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